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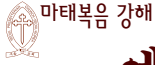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예수님의 위대한 위임장

(마 28:16-20)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신앙의 자리요, 부름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며, 첫 사랑의 자리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첫 사랑과 첫 사명을 회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갈릴리를 떠나 예수님이 승천하실 감람산으로 가라고 하였고 제자들은 그 곳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에 따르면 500여 성도들이 감람산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하셨습니다(1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땅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처지에 놓이고, 그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땅의 권세를 다시 찾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위임하는 위임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위임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그 권세를 이제 우리에게 위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여기서 그 유명한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 되었으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권세를 십자가로 되찾아 아버지께로 드렸고, 아버지는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궁극적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게을리 하고 있다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복음의 생명줄을 던져 못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므로 지상대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A Letter of Attorney from Jesus

(Matt. 28:16-20)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Jesus Christ's situation just prior to ascendance into heaven was recorded in the text after Jesus Christ who had risen from the dead finished his work on earth for forty days. Jesus who had risen from the dead wanted to meet his disciples in Galilee that was the first place of faith, of calling, of sacrifice, and of first love. And there, his disciples recovered their first love and calling. Now, Jesus said them to go to the Mount of Olives where he would leave Galilee and ascend to heaven, and his disciples had their last chance to worship him there.

According to the evidence of the Apostle Paul, it is said that when five hundred saints gathered, Jesus who had risen from the dead appeared. And just before Jesus ascended into heaven, God gave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v. 18).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the birds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on the ground.’” (Gen 1:28).

God who had possesse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created the world and gave it to human beings. But men who were tempted by the Satan committed the sin of obedience, became far from God, and all authority was lastly taken by the Satan. Nevertheless, since he came to the world and died on the cross and rose from the dead, God's son, Jesus solved the problem of human sins, and found the authority on earth that was taken by the Satan and gave it back to God. And now, the Father, God commissione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to the Son, Jesus Christ again. It is so called the commission ceremony of which God delegates all authority to the Son Jesus Christ. But this wonderful commission ceremony does not finish here God entrusts us with the authority that Jesus recei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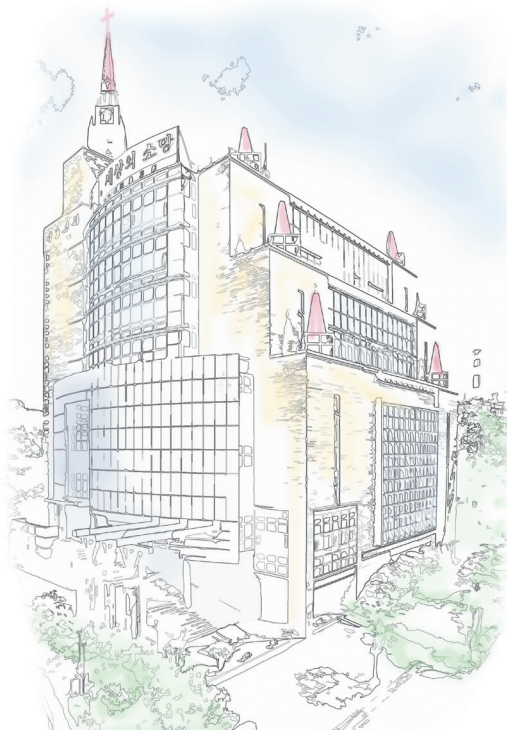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Matt 28:19-20).

Here, the famous, ‘The Great Commission’ appears. Here, therefore means that ‘because the Gospel of the cross has achieved’, ‘now Jesus Christ took all authority on earth back with the cross and gave it to the Father, and the Father now commissioned Jesus Christ with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Therefore, Jesus says, you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My beloved Christians,

The ultimate commission of Christians in church is to save the spirit. For this work, Jesus commissioned us with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If we are lazy to save the spirit, we live our life by losing the purpose of an ultimate life.

Anywhere and anytime, by throwing the life's string of the Gospel away and leading many souls to Jesus,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the blessed people who achieve The Great Commissio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명자대회 은혜중에 진행 중

VIP 초청 새생명축제 : 10월 23일(금) 오전 11시, 10월 25일(주) I II III부 예배, 찬양예배 시 특별새벽기도회 : 11월 16일(월)~21일(토)

말씀과 기도와 전도운동인 2015년 사명자대회가 지난 주 발대식을 시작으로 5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사명자대회는 교회설립 50일전부터 기도로 주님께 헌신과 사랑을 고백함을 사명으로 삼았다. 해마다 서울교회는 교회설립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사명자대회를 가짐으로써 교회설립 기념일인 11월 넷째주일을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계기로 삼고 있다.

서울교회는 국가와 민족,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2015년 사명자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명자대회도 “나 여호와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와 동산같이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

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사51:3)말씀을 붙들고 진행된다.

50일동안 계속되는 자율기도회, 모든 성도가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다니엘기도, 다락방이 공동으로 하는 다락방기도에 동참함으로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란다.

특히 11월16일(월)~21일(토)까지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특별새벽기도회는 주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박노철 담임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

또한 5000명의VIP, 1000명의 방문자, 300명의 결신자를 품고 기도중에 있으며 Life5운동 전도전략 가운데 이번주는 나눔방문을 진행하며 전교인 1인 1명 전도, 노방전도, 축조전도에 동참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새생명축제되길 바란다.

2015년 사명자대회 24시간 자율기도현황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 : 오늘 각 교회학교별 / 본선 : 16일(금) 오후 7시
시상 : 10월 18일(주) 2부예배 시 / 발표 : 찬양예배 시

2015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이 오늘 각 교회 학교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범위는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3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은 성도의 영성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귀한 일이다.

대회 시까지 차근차근 암송하여 주제별로 선정된 이번 성경암송대회에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전하기 바란다.

본선은 10월 16일(금), 시상은 18일(주) 2부예배 시, 발표는 18일(주) 찬양예배 시에 있을 예정이다.



2014년 전교인 암송대회 교육1국 수상자

수험생을 위한 토요일기도회

10월 17일(토) ~ 11월 7일(토)
오전 10시 / 501호

우리 교회 고등부 (지도 : 천세종 목사)는 2016 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토요일 학부모 기도회"를 10월 17일(토)부터 11월 7일(토)까지 오전 10시, 501호에서 4주간 동안 진행한다.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인근 주민 모두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본지 4면을 참고하기 바란다.

수험생을 위한 토요일 기도회 안내

2015년 10월 17일(토) ~ 11월 7일(토) 오전 10시 / 501호

1차: 10월 17일(토) ~ 11월 7일(토) 오전 10:00 ~ 11:00 (총 11주)

2차: 10월 17일(토) ~ 11월 7일(토) 오전 10:00 ~ 11:00 (총 11주)

3차: 10월 17일(토) ~ 11월 7일(토) 오전 10:00 ~ 11:00 (총 11주)

4차: 10월 17일(토) ~ 11월 7일(토) 오전 10:00 ~ 11:00 (총 11주)

5차: 10월 17일(토) ~ 11월 7일(토) 오전 10:00 ~ 11:00 (총 11주)

6차: 10월 17일(토) ~ 11월 7일(토) 오전 10:00 ~ 11:00 (총 11주)

목사님, 궁금해요!

이중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88)

(문 188)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멸망당할 자)에게 보내 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살후 2:11)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답) 마지막 심판 때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살인자 음행자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계21:8).

사도 바울은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며 그는 적그리스도로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살후2:9-10).

환언하면 하나님께서 거짓의 왕 사탄의 악한 영향력을 이기시고 그들로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모든 거짓 것을 믿도록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 그들이 미혹으로 끌려가게 버리신 것입니다.(롬1:24-32).

이 같은 예는 열왕기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람왕 벤하닷은 이스라엘에게 패하므로 자기 부친이 빼앗은 도시들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왕상20:34) 그러나 아람이 그 조약과 관련된 길르앗 라못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자기를 찾아온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전쟁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아합왕이 모아놓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로 만족치 않고 다시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을 듣자고 요구했습니다. 그 때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가 있으나 그는 자신에게 흉한 일만 예언한다면 그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미가야를 데려오게 하되 그로 하여금 자기 뜻에 맞는 예언을 하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신 것을 말할 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은 즉 전쟁을 하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자입니다. 거짓선지자의 말을 좋아하는 아합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때 아합은 미가야의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미가야는 자기가 본 계시를 말하고 결국 길르앗 라못의 전쟁은 예언대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왕상22:1-22)

미가야는 400명의 선지자들의 전쟁 낙관론은 ‘거짓말하는 영’의 말이라고 아합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관할 하에서 일어나므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영도 이용하실지언정 이용당하시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씩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아합을 벌하시려고 그로 하여금 거짓말하는 영에게 속도록 내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거짓말을 조장하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역사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참 하나님을 거역하면 스스로 거짓의 영에게 미혹되고 참 진리를 거절하면 거짓을 스스로 먹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나의 하나님 - 에스더여전도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 하련



최미경 권사 (14교구)

잃어버려도 쉽게 또 살 수 있어 그리 어렵지 않은 성경책이 이 지구상의 어떤 이에게는 애절하게 갖고 싶은 한 권의 책입니다.

가을 야유회 대신 좀더 의미있는 시간을 갖자는 회장 박현영 권사의 제안으로 에스더여전도회는 지난 5일 대한성서공회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

해지게 되었는지 성경의 유래, 성경의 번역과 제작 과정 등을 보고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기는 우리말 성경은 사실 한 외국인 선교사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에서 만주에 파송된 존 로스 선교사는 조선에 복음을 전래시킨 선구자입니다. 1872년에 만주에 선교사로서 영구 정착한 로스 선교사는 1874년 만주의 조선인 마을에서 서상륜, 이응찬 등의 조선 사람을 만나 그들과 더불어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는 일에 힘써 마침내 1887년 신약 전서인 '예수성교전서'를 번역 출판하여 조선말 성경 보급에 물꼬를 터 하나님 말씀을 조선땅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책은 당시 권서라는 분들이 지게에 성경을 지고 조선 방방곡곡을 다니며 성경을 보급하였답니다. 이렇게 조선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1907년 평양대부흥으로 이어지고 마침

내 한반도의 복음화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 어둠의 땅 조선에 말씀의 등불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로스 목사는 교회를 세울 때 선교사의 지식과 열심 보다는 그의 인격이 더 중요하며 희생하는 마음 없이 자기 문화의 가치와 개인의 쾌락을 선행한다면 전도인 마음에 방해가 된다며 오직 복음 전파에 자신의 온 삶을 던졌습니다. 그는 부인과 4명의 아이들을 중국땅에 묻었지만 그 슬픔을 선교의 열정으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성경책을 제작하는 바이블코리아를 방문하여 성경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제작 과정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100여개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제작하여 140여 개국에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130년전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고자 묵묵히 힘쓰는 분들을 보니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그 분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절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파주로 가는 자유로를 달리며 임진강과 벼가 익어가는 누런 들판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새삼 귀하게 여겨지는 한 날이었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되게 하소서

오광환 장로 (사명자 대외 본부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아침 풀잎 위의 이슬과 같이 태양이 햇빛을 비추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도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받아 짧은 우리의 인생가운데 수많은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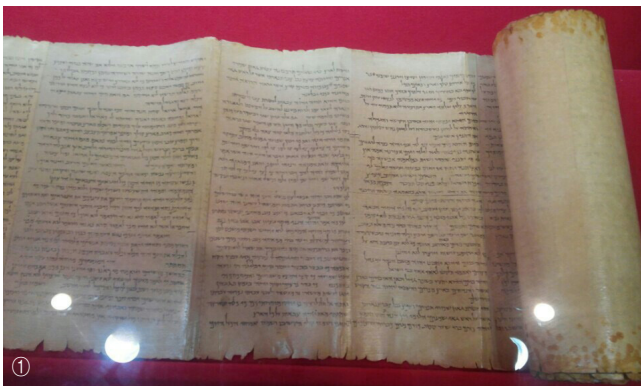
우리의 몸은 어두운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의 영은 밝고 따뜻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환락을 바라기 보다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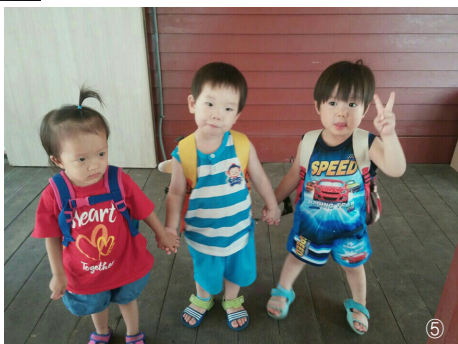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영혼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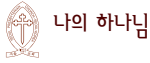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하시고 전도자의 열정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① 이사야서 사해사본
② 예수성교전서를 인쇄한 쿠펜베르크 인쇄기
③ 우리교회 이마용봉사팀은 지난 6일(화) 매월 봉사하는 동명요양원 부설 동명 아동복지센터에 교회에서 제공한 아동오리탈 파커를 전달하였다.
④ ⑤ 동명복지원 어린이들





나의 하나님



향기 좋은 커피를 만들고

“향기 좋은 커피를 만들고 손님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 겁니다.”

과천 경마공원 내 승마훈련원에 자리한 커피전문점 ‘나는 카페’ 5호점에서 근무 중인 김희경씨(25)는 바리스타 활동을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행복’이라고 표현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그가 나는 카페 바리스타로 활동을 시작한 건 지난 2013년. 나는 카페를 알게 된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며서부터다. 가평 호산나대학에서 제빵과 커피를 배웠던 그는 한국관광공식문화협회 주관 스페셜 바리스타 자격 검정에 합격하면서 본격적인 바리스타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 지역 커피 전문점에서 일해오다가 2년 전 과천 나는 카페로 옮겼다.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는 나는 카페에는 하루 평균 60여명의 손님들이 방문한다. 그는 이곳에서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바리스타 활동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일했던 커피숍보다 메뉴도 많고 제조법도 다양했다. 그는 출근 전 매일같이 메뉴를 암기하고 제조법을 연습했고, 이제는 다른 직원들에게 제조법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을 정도로 숙달됐다.

가장 자신있는 커피는 자격 검정 시험분야였던 에소프레소와 카푸치노. 그는 커피 위에 얹어지는 하트 거품을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연습했다.

일반 커피매장의 점장이 목표라는 김희경씨는 “실수가 두려워 포기해 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남들보다 실수가 더 많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용기를 갖고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특별 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선교합창단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교회음악을 중심으로 선교의 목적으로 2007년 창단된 전문합창단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김선아 교수의 지휘로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Giovanni Pierluigi da Palestrina)”, “너의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 (Felix Mendelssohn-Bartholoy)”, “오 아름다운 주의 성전 (R.Vaughan Williams)” 등 네곡을 찬양하며, 오르간반주는 채희영선생이 담당한다.

등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0월16일(금) 홀트아동복지회 창립60주년기념식에서 기도를 한다.

■ 금주의 식사 제공 : 백정순 권사, 김대훈 집사, 유보영 집사, 김범수 성도, 박은영 성도 가정 (정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5 사명자대회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여 10월 23일, 25일에 있을 VIP초대 새생명축제로 인도할 수 있도록
2. 2015 전교인 성경암송대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3.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이 시대에 맡겨주신 서울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천국시민양성 - 고등부

수험생을 위한 토요일학부모기도회



매 주일 오후 12시 40분. 504호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로 가득 채워집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제목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주일 학부모 기도회」가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토요일 학부모 기도회

· 기간: 2015년 10월 17일 (토) ~ 11월 7일 (토), 오전 10시

- 장소: 501호
- 주제: 감사와 목마름으로
- 첫 번째 기도: 10월 17일(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빌립보서 4: 6-7)
- 두 번째 기도: 10월 24일(토) “그릇을 준비하며 기도하라” (왕하 4:1-7)
- 세 번째 기도: 10월 31일(토) “여호와께 말김으로 기도하라” (잠언 16:1-9)
- 네 번째 기도: 11월 7일(토) “목마름으로 기도하라” (시편 4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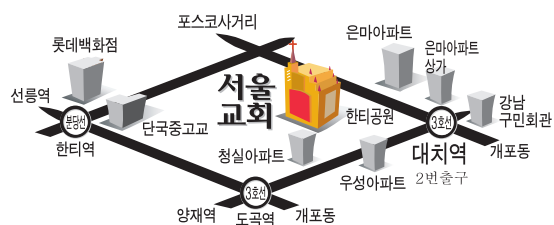
천세종 목사 (고등부 지도) 매 주일 드려지는 이 기도회와는 별도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16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토요일 학부모 기도회」가 10월 17일(토)부터 11월 7일(토)까지 오전 10시, 501호에서 4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된 「토요일 학부모 기도회」는 매 시간 100여명의 학부모님들이 눈물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올해는 “감사와 목마름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대입 수능 당일인 11월 12일(목)에도 수능시간표에 따라 함께 기도하는 「수능 당일 학부모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새 벽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